

박지원 산문에 나타나는 ‘명(名)’의 문제에 대한 고찰

장진엽*

<차 례>

1. 들어가며
2. 명(名)의 공허함과 그 역설적 가능성: 「선굴당기」와 「관재기」
3. 명(名)의 영속성에 대한 회의와 사색: 「발승암기」와 「영재집서」
4. 나가며: 「명론」의 관점

<국문초록>

본고는 연암 박지원의 산문 가운데 「선굴당기」, 「관재기」, 「발승암기」, 「영재집서」에 나타난 ‘명(名)’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선굴당기」는 이름의 공허함과 구속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름의 공허함이 오히려 그 이름 밖의 ‘실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준다. 「관재기」는 아(我)와 명(名)을 비롯한 일체의 사물을 “순순히 받아서 보내라”는 가르침을 통해 사물의 소멸과 변화 그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두 편의 글은 이름의 공허함을 논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역설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발승암기」는 이름을 남기려는 시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인간, 나아가 문인 지식인의 모순적인 존재 조건을 부각하고 있으며, 「영재집서」는 문학을 통해 이름을 남기려는 행위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사색하게 만든다. 이상의 분석과 관련하여 박지원의 정론(政論)인 「명론」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름, 즉 명예를 추구하는 속성을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근원적인 요소로 보는 관점이 발견된다. 요컨대 위 작품들은 이름 짓기와 이름 남기기에 대한 부정의 글이 아니라 이에 대한 연암의 고민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강한 부정과 회의 속에서 그 가능성과 필연성을 비틀림과 반전, 숨김과 유머를 통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연암 박지원, 명(名), 선굴당기, 관재기, 발승암기, 영재집서, 명론

1. 들어가며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문학에 관한 연구는 이른 시기부터 국문학 연구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오늘날까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열하일기(熱河日記)』와 『방경각외전(放穉閣外傳)』 소재 전(傳) 작품들이 ‘소설’ 문학으로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그 후로 『열하일기』 전편 및 『연암집』 수록 작품들로 연구범위가 확대되었다. 연구주제 역시 연암의 현실 인식과 실학적 사고, 인식론과 문예론, 문체와 작법, 글쓰기 방식 등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로는 단국대 소장 필사본 자료들을 비롯한 새 자료의 공개와 함께 텍스트 비평 작업 역시 활기를 띠고 있으며, 그 성과로 내실 있는 자료집과 번역서의 출간이 이루어졌다. 박지원 작품이 대부분 산문인 관계로 연암 연구의 대부분은 산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시문 연구 역시 간간히 시도되고 있다.

연구사 초기에는 『연암집』 수록 산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방경각외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근래에는 그 외의 작품들에 대한 논의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암집』 수록 작품(『방경각외전』 외) 가운데 「공작관문고자서(孔雀觀文稿自序)」, 「초정집서(楚亭集序)」, 「낭환집서(娘丸集序)」, 「능양시집서(菱洋詩集序)」, 「영처고서(嬰處稿序)」, 「녹천관집서(綠天館集序)」, 「종북소선자서(鍾北小選自序)」 등은 박지원의 문예관이나 인식론과 관련하여 자주 활용되는 글들이다. 개별 작품 가운데는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伯姊贈貞夫人朴氏墓誌銘)」도 뛰어난 문예미로 인해 논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백이론(伯夷論)」과 「옥새론(玉璽論)」은 박지원의 사론(史論)으로서 연구되었다. 그 외 「선굴당기(蟬橋堂記)」, 「발승암기

(髮僧庵記), 「불이당기(不移堂記), 「관재기(觀齋記), 「주공담명(塵公塔銘), 「영재집서(冷齋集序), 「회우록서(會友錄序)」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되어왔다. 기존의 성과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연암 문학의 다채로운 면모를 밝히기 위해 작품론 방면의 연구가 보다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연암집』 수록 산문 작품을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시도하되, 몇몇 작품들을 관통하여 나타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명(名)’의 문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고찰하고자 한다. ‘名’이라는 글자에는 몇 가지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라는 뜻으로서, 글자 그대로 ‘명칭(名稱)’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이름을 떨치다’, ‘이름을 남기다’라고 할 때의 용법, 즉 ‘명성(名聲)’의 의미이다. 여기에는 ‘명예(名譽)’라는 함의도 있다. 세 번째는 ‘명분(名分)’이라는 뜻으로, 군신이나 부자 등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을 뜻한다. 박지원 산문에서 ‘名’이라는 글자는 이 세 가지 의미로 두루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들은 완전히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한 편의 글 속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¹⁾도 있다. 본고에서 다룰 ‘명’은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첫 번째 의미 및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의미로 해석되는 개념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 작품은 『연암집』 제1권 《연상각선본(煙湘閣選本)》에 수록된 「발승암기」와 제7권 별집 《중북소선(鍾北小選)》에 수록된 「선굴당기», 「영재집서», 「관재기」이다. 이 작품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몇 차례 다루어진 적이 있으나, 이들을 포괄하는 주제로서의 명의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한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박지원 작품에 나타난 인정 욕망의 구조를 다룬 류준필의 연구에서 위 작품들이 ‘이름’에 대해 논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어 본고의 논의에 참고가 된다.²⁾ 한편 위 작품들에 대한 개별

1) 「명론(名論)」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다시 언급한다.

2) 류준필, 「조선 후기 문인 사회의 인정 욕망과 타자(성)-연암 박지원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7, 국문학회, 2008, 19~24쪽.

연구들에서 명에 관한 고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석의 내용에 있어서는 본고와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³⁾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박지원은 ‘이름’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것이 ‘유의미한’ 어떤 것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본다. 또, ‘이름’의 영속성에 대해 회의하면서도 ‘이름을 남기려는 행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그러한 회의를 통해 문인 지식인의 존재 조건에 대해 사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작품 분석을 통해 이러한 연암의 사고를 살펴보기로 한다.

2. 명(名)의 공허함과 그 역설적 가능성

: 「선굴당기」와 「관재기」

「선굴당기」는 이덕무(李德懋)의 당호 선굴당(蟬橋堂)에 대한 기문이다.⁴⁾ 글은 영처자(嬰處子)가 분분하게 많은 호를 짓는 것을 비웃는 벗의

3) 이에 관해서는 본론의 논의 과정에서 언급한다.

4) 「선굴당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는 이현식, 「〈선굴당기(蟬橋堂記)〉- 부정의 미학」, 『박지원 산문의 논리와 미학』, 이회, 2002와 이은봉, 「『蟬橋堂記』로 본 이름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20, 동양고전학회, 2004의 두 편을 들 수 있다. 이현식은 「선굴당기」의 주제, 구성, 표현 등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박지원이 ‘이름 이미지’의 부정을 통해 ‘몸 이미지’의 긍정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굴당이란 당호는 단순히 이덕무의 또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255쪽)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은봉은 「선굴당기」를 이름과 명분에 집착하던 당시 양반사회의 세태를 비판하는 글로 이해하였다. 본고는 이 두 편의 논문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선굴당기」에 접근한다. 선굴당의 실제적 의미를 분석한 이현식의 논의는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지만, 「선굴당기」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당호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편 본고는 이 글이 특정 시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비판·풍자하는 글이라는 이은봉의 관점과는 의견을 달리한다. 이름에 집착하는 세태는 연암이 이 글을 창작하는 계기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수 있으나, 글의 주제의식 자체는 ‘이름 짓는 행위’에 대한 일반론

말로 시작한다. 호가 많은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가. 영처자의 벗은 대사(大師)가 열경(悅卿)에게 해준 이야기를 통해 이름 짓는 일의 폐해가 무엇 인지를 알려준다. 열경은 김시습(金時習)의 자(字)로서, 그가 속세의 이름을 버리고 범명을 구하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는 물론 유자로, 또 불자로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많은 호를 가졌던 인물인 김시습의 이미지를 차용한 허구적 일화이다.

대사는 “심하구나, 너의 미혹됨이여. 너는 아직도 이름을 좋아하는구나. [甚矣汝惑. 爾猶好名.]”라는 말로 훈계를 시작한다. 첫 번째로 제기한 문제는 이름의 비실체성이다. 그는 먼저 열경에게 네 몸을 돌아보라고 한다. 몸 역시 그림자에 불과한데, 이름은 아예 그림자조차 없는 것이다. 네가 속명을 버린다고 하지만 무엇을 버린다는 말인가.⁵⁾ 이름은 물건처럼 없애 버리거나 팔아버릴 수도 없다.⁶⁾ 이것이 이름에 관한 대사의 첫 번째 명제이다. 이어지는 두 번째 명제는 “이름은 내 것이지만 남에게 달려있다. 남이 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 나에게 온갖 감정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언제 다시 나에게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⁷⁾ 실체가 없을뿐더

차원의 고민이며 당대의 세태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 5) 汝顧爾形. 名在何處. 緣汝有形. 卽有是影. 名本無影, 將欲何棄. (『燕巖集』 卷7 別集《鍾北小選》, 『蟬橋堂記』) 본고에서 인용한 작품의 원문은 모두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상(1~545쪽)·중(1~583쪽)·하(1~553쪽), 돌베개, 2007에 수록된 교감 원문(《한국문집총간》 252집 수록 『연암집』을 대본으로 하여 여러 이본을 참조하여 교감함)을 가져온 것이다. 표점은 필자가 추가하였다. 이하 원문의 출처 표시는 생략한다.
- 6) 汝將棄名, 名匪玉帛, 名匪田宅, 匪金珠錢, 匪食穀物, 匪鼎匪錡, 匪鬻匪鼎, 匪筐管捲杯牟瓶盜及俎豆物. 卽匪佩囊劔刀葭香可以解去, 匪錦圓領繡鶴補子帶犀魚果可以脫去. 卽匪綉枕兩頭鴛鴦流蘇寶帳可賣與人. 匪垢匪塵非水可洗, 匪繩梗喉, 非水鴉羽可引嘔歔, 匪癩乾痂可爪剔除.
- 7) 卽此汝名, 匪在汝身, 在他人口. 隨口呼謂, 卽有善惡, 卽有榮辱, 卽有貴賤. 妄生悅惡, 以悅惡故, 從而誘之, 從而悅之, 從而懼之, 又從而恐動. 寄身齒吻, 茹吐在人, 不知汝身何時可還.

러 본래 내게 귀속된 것이지만 결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⁸⁾ 다음 세 번째 명제는 아래와 같이 진술된다.

저 바람 소리에 빗대어보자. 바람은 본래 빈 것인데 나무에 붙어서 소리가 나고 반대로 나무를 흔들며 움직이게 한다. 너는 일어나 나무를 보라. 나무가 고향할 때는 바람이 어디에 있는가. 알 수 없구나, 네 몸에 본디 이것이 없었는데 몸이 생겨남에 따라 이에 이 이름이 있게 되어 몸을 칭칭 감고 껍박하고 지켜서 떠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임을. 저 북소리에 빗대어보자. 북체를 멈추어도 소리는 계속 울린다. 몸이 백 가지로 변화해도 이름은 그대로 있다. 그것이 텅 빈 까닭에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마치 매미에게 허물이 있는 것과 같고, 굴에 껍질이 남는 것과 같다. 껍질과 허물 같은 외물에서 소리와 향을 찾으니, 껍질과 허물이 저처럼 텅 비었음을 모르는 것이다.⁹⁾

이름은 본래 형체가 없는 것인데 내 몸에 붙어서 그 존재를 드러낸다. 내 몸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반대로 내 몸을 속박하고 나를 조종한다. 심지어 내 몸이 이미 죽고 나서도 이름은 그대로 남아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벗어날 수도, 팔아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몸과 함께 사라지지도 않는다. 마치 매미의 허물과 굴의 껍질처럼 본체가 없어진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이름이다. 그것은 본체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마치 거기에서 본체의 특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매미 허물에서는 더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말라버린 굴껍질에선

8) 이러한 인식은 「공작관문고자서」의 “得失在我，毀譽在人.”이라는 구절과 의미가 통한다. 이 구절은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는 나에게 달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비방과 칭찬은 남에게 달린 것이라는 뜻이다.

9) 譬彼風聲。風本是虛，着樹爲聲，反搖動樹。汝起視樹。樹之靜時，風在何處。不知汝身本無有是，卽有是事，迺有是名，而纏縛身，劫守把留。譬彼鼓鍾。桴止響騰。身雖百化，名則自在。以其虛故，不受變滅。如蟬有殼，如橘存皮。尋聲逐香皮殼之外，不知皮殼空空如彼。 본고의 인용문(번역)은 모두 신호열·김명호 옮김(2007), 앞의 책을 참조하여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이하 번역문의 출처 표시는 생략한다.

아무 향기도 나지 않는다. 즉, 이름은 텅 비어 있는 것이어서 거기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실체의 특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후에도 마찬가지로 살아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허한 것이어서, 그것에서 그 사람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명제까지는 이름의 비실체성과 공허함을 말하고 있다.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자신의 이상이나 포부를 부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남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름이란 매미 허물이나 굴껍질 같은 텅 빈 것으로서 나에게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이름을 짓는 행위란 ‘무의미한 일’이 된다. 「선굴당기」는 당호의 의미나 그 주인의 면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호를 짓는 일이 무의미한 일이라면 그 호의 의미를 풀이한다는 것은 전연 쓸데없는 일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일도 불필요하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특질을 말해줄 수 없다면 그의 인품이나 취향이 그 이름과 무관한 것은 물론이다.

대사는 이어서 이름의 구속성에 대해 말한다. 네 번째 명제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족을 이루어 딸린 식구가 생기면 몸이 부자유하게 된다. 태어나서는 아명이 있고 자라서는 자와 호를 가지며 선생 칭호에 관작이 더해지고 죽은 후엔 시호가 붙는다. 마찬가지로 이름이 많아질수록 속박이 많아져서 그 이름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¹⁰⁾ 여기까지가 대사의 말이다. 내게 붙은 여러 이름들은 모두 주인에게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며, 그 이름을 매개로 하여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든다. 부를 이름이 없다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수도 없을 것이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그가 어떤 가문 출신인지를 보여주며, 관작으로 부르는 명칭에는 그의

10) 凡爲汝身牽掛拘繫，以多身故，亦如汝名。幼有乳名，長有冠名，表德爲字，所居有號。若有賢德，加以先生。生呼尊爵，死稱美謚。名之既多，如是以重。不知汝身將不勝名。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없혀 있다. 스스로 지은 자호에는 그의 삶의 지향이 담겨 있다. 시호는 이보다 더해져,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어진 것이다. 내가 지은 이름이든 남이 붙여준 이름이든 나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게끔 만드는 속박이자 굴레로 작용한다. 이름은 실체가 없고 공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은 ‘구속’하는 데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명제는 이름이 결코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두 번째 명제와도 연관된다. 늘 남의 입에 있기에 이름은 내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

영처자의 친구는 대사의 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대저 어린아이는 이름이 없어서 영이라고만 칭하고, 여자는 자가 없어서 처자라고만 부른다네. 그러니 영처라는 것은 은사가 이름을 갖지 않고자 한 것인데, 지금 문득 선굴로 자호하다니 자네는 장차 이를 따라서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할 걸세. 어째서인가. 대저 영이는 지극히 약하고 처녀는 지극히 부드럽지. 사람들은 그 부드럽고 약한 것을 보고서 이것으로 부르는 것이라네. 저 매미는 소리를 내고 굴은 향기를 풍기니 자네의 당은 장차 이것을 따라서 저갓거리처럼 될 것이네.¹¹⁾

‘영처자’라는 본래의 호는 그 자체가 남에게 알려지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은자의 명칭이었다. 그것이 호이기는 하지만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와 같은 차원의 이름이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선굴’은 그렇지 않다. 매미의 울음소리와 굴의 향기는 특별한 이상을 담은 말이다. 사람들은 이 이름을 듣고 그대의 인품과 취향을 상상할 것이고, 그대의 집은 저갓거리처럼 되고 말 것이다. 특별히 시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현자가 알아춤을 받아서

11) 夫孺子無名，故稱嬰，女子未字，曰處子。嬰處者，蓋隱士之不欲有名者也。今忽以蟬橘自號，則子將從此而不勝其名矣。何則。夫嬰兒至弱，處女至柔，人見其柔弱也，猶以此呼之。夫蟬聲而橘香，則子之堂其將從此而如市矣。

등용되는 것을 옥이 팔리는 것에 비유한 『논어』의 구절¹²⁾의 떠올리게 한다. 이름이 꼭 ‘선굴’이어서가 아니다. 남의 시선을 끄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는 이름을 짓는 행위는 ‘나를 알아달라’는 외침과 다르지 않다. 조용히 숨어 살던 ‘영처자’는 ‘선굴’이라는 실체도 없는 이름에 구속되어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벗은 그것을 경계한 것이다.

만약 글이 여기서 끝나면서 “이로써 선굴당의 기문으로 삼는다.”라고 했다면 이 글의 주제는 이름의 무의미성과 구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벗의 긴 충고 뒤에 짙막하게 제시된 영처자의 대답은 이 글의 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저 대사의 말과 같을진댄 매미가 허물을 벗으면 껍질은 말라버리고 굴이 시들면 껍질은 텅 비게 되겠지. 어찌 소리와 빛깔, 냄새와 맛이 남았겠는가. 이미 좋아할 만한 소리와 빛깔, 냄새와 맛이 없는데 사람들이 껍질과 허물 같은 외물¹³⁾에서 나를 찾으려 하겠는가.¹⁴⁾

영처자는 이름의 비실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의 벗이 하고많은 비유 중에 굳이 그의 새 당호인 ‘선굴’, 즉 매미와 굴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12) 子貢曰：“有美玉於斯，韞櫝而藏諸，求善賈而沽諸。”子曰：“沽之哉，沽之哉！我待賈者也。”（『論語』子罕）

13) ‘껍질과 허물 같은 외물’의 원문은 ‘皮殼之外’이다. 이 구절은 ‘껍질과 허물의 바깥’이라는 번역도 가능하다. 이현식(2002), 앞의 책, 230쪽에서는 이 구절이 포함된 문장을 “이미 즐길 만한 소리·빛깔·냄새·맛이 없으니 사람들이 장차 껍질과 허물 이외에서 나를 찾을 것이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면 영처자가 이름의 가능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 된다. 그러나 앞에 나오는 대사의 말 가운데 있는 “如蟬有殼，如橘存皮。尋聲逐香皮殼之外，不知皮殼空空如彼。”라는 문장을 보면 ‘皮殼之外’가 매미의 허물과 굴의 껍질이라는 외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부분 역시 같은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된다.

14) 夫若如大師之言，蟬蛻而殼枯，橘老而皮空。夫何聲色臭味之有。既無聲色臭味之可悅，則人將求我於皮殼之外耶。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덕무는 그의 「기호(記號)」에서 “집안이 가난하여 집이 한 뒷박만하여도 즐거워하였다. 이에 매미의 껍질과 두노인의 굴처럼 구부러져 있다 하여 또 선굴현이라는 호를 붙였다.”¹⁵⁾ 고하였다. 또, 「선굴현명병서(蟬橋軒銘并序)」에서는 구양수의 「명선부(鳴蟬賦)」와 굴원의 「굴송(橋頌)」을 언급하였는데, 「명선부」에서 “바람을 타고 높이 날면서도 그칠 곳을 아는 것이며[凌風高飛, 知所止者耶.]”라 한 부분과 「굴송」에서 “가지 잎 무성해 다듬기 좋으며 이름답고 훌륭하구나.[紛緝宜脩, 嬌而不醜兮.]”라고 한 부분을 인용하였다.¹⁶⁾ 안빈낙도와 함께 매미와 굴의 덕을 본받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벗은 그의 ‘고상한’ 의도를 일부러 모른 척 시치미를 떼면서 반대로 이름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로서 매미 허물과 굴껍질을 제시했다. 일종의 ‘비꼬기’라고 할 수 있는 수법이다.

그러나 영처지는 벗의 이러한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상대가 쓴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덤덤하게 자기 생각을 밝힌다. 매미 허물이나 굴껍질처럼 공허한 것이 이름이라면 그 이름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소리와 빛깔, 냄새와 맛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이름이 본체, 즉 이름의 주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름의 주인이 살아있건 죽었건 간에 그 이름은 본체와는 무관한 껍데기일 뿐이다. 여기까지는 상대의 말을 수긍한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말에 반전이 있다. 이름이란 매미가 탈피하고 난 후에 남은 허물이요, 알맹이를 먹어버린 후의 말라버린 굴껍질이다. 저 잣거리처럼 바뀐 내 집에 온 사람들은 그 어떤 매력적인 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실망해서 발걸음을 돌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름으로 자처했던 ‘나’는 어디로 간 것일까? 사람들은 ‘이름’에 이끌려 내 집을 찾아

15) 家貧, 屋如斗小而亦樂焉。乃弓諸玄蟬之殼、二叟之橋, 又號蟬橋軒。(李德懋, 『靑莊館全書』 권3 《嬰處文稿》1, 「記號」, 한국고전종합DB)

16) 이현식(2002), 앞의 책, 223~224쪽.

왔지만 실제로는 ‘나’를 찾아온 것이며,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그 이름에서 찾지 못한 ‘나’의 특질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다. 그러나 껍질과 허물에서 찾을 수 없었던 ‘나’의 실체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않겠는가?

전체 771자 중에 704자에 달하는 주장을 단 45자의 답변으로 뒤집는 것이 가능할까? 벗의 주장은 논리정연하며, 영처자의 첫 마디는 대사의 말을 가져온 것이니 사실상의 반론은 마지막 한 문장뿐이다. 또한 영처자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할 수도 있겠다. 결국 이름의 공허함이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그 이름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면 애초에 이름을 짓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르랴. 그렇다면 마지막 한 문장에는 이 말에 대한 답변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사람들이 내 이름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임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서 당호를 지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나에게 찾아오게 만들었는가. 나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영처자는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의 함의는 독자가 파악해야 한다.

그 함의를 추측해 보자면 이렇다. ‘나’의 소리와 빛깔, 냄새와 맛을 전혀 보여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당호를 붙인 것은 그것이 허물 벗은 매미처럼, 시들어버린 굴껍질처럼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나’의 본체는 탈피한 매미처럼 허물을 남기고 날아갔다. “身雖百化”하여도 이름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거쳐 간 나의 이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 이름이 ‘암시’하는 울음소리와 향기에 끌려 몰려든 사람들은 이미 푸석해진 ‘옛 나’의 흔적을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미 그것을 ‘떠나버렸다’는 표지이기도 하다. 즉, 그것은 ‘나’가 그곳에 있었음을, 그러한 단계에 머물렀음을 지시하는 ‘기호’로서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멀리서 끌어당긴 그것이 실체 없는 빈 껍데기인 것에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남겼는가, 즉 시들어버린 이름의 주인을 보고 ‘이 이름과 무관

하면서 이 이름을 지니고 있는' 이 사람의 본모습을 탐구하고자 할 것이다. 만약 애초에 이름을 짓지 않았다면 그는 껌데기를 남기지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 껌데기는 오히려 '이것이 아닌 사람'이라는, 네거티브적인 방식으로 그를 부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름의 공허함이 오히려 그 이름 밖의 '실체'를 찾으려는 노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선굴당기」는 마치 이덕무가 '선굴'이라는 당호를 지은 것에 대해 박지원이 힐책하고, 그것에 이덕무가 반박했던 일을 기록한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영처자의 벼는 박지원이라고 볼 필요도 없고, 영처자의 대답을 이덕무의 생각이라고 볼 필요도 없다. 이 글은 '이름'을 짓는 행위에 대한 저자 박지원의 사유가 담긴 글이다. 저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상해본 것이다. 박지원은 분명 이름을 짓고 그것에 집착하는 일에 회의론을 갖고 있었다. 대사의 입을 빌린 벼의 논의는 치밀하고도 진지하다. 그러나 이름의 무의미성과 구속성에 대한 사유가 '이름 짓기'를 부정하는 데로 나아가지는 않았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름 짓기가 허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그중에서도 '문인 지식인'은 그것을 멈출 수 없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이고, 글을 써서 이름을 남기는 것은 그들의 존재 조건이기도 하다. 이름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러한 모든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 영처자의 답변은 기실 이름에 대한 회의를 넘어선 어떠한 가능성에 대한 저자 자신의 모색이다.

그렇다면 껌데기 바깥에서 실체를 찾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이는 박지원의 문론(文論)으로 알려진 다른 글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즉, 까마귀가 검은색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색(色)에 있는 광(光)을 보고 형(形)에 있는 태(態)를 보아야 한다.¹⁷⁾ 본 것이 적은 자들[所見少者]은 선굴이라는 이름에만 이끌리

17) 「능양지집서」의 주장이다. 뒷 문장의 '所見少者'와 '達士' 역시 이 글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졌지만 통달한 선비(達士)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하늘은 푸른데 ‘天’이란 글자는 푸르지 않다고 한 어린아이¹⁸⁾의 시선을 배운다는 뜻이기도 하다. 표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표상이 본래 지시하고 있는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는 논의¹⁹⁾와도 통한다. 복희씨가 팔괘를 만들고, 창힐이 글자를 만들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영처자의 새 당호는 그 자신의 특질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무용한 것이지만, 꺾데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볼 줄 아는 누군가로 하여금 이와 같은 태도로 자신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선굴당기」는 두 차례의 역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당호에 대한 기문 이면서 당호의 무의미성과 구속성을 말하고 있다는 역설이다. 글의 대부분은 마치 의론문처럼 이를 논증하는 데에 할애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불과 50자도 되지 않는 답변으로 논리정연해 보이는 이 주장에 균열이 간다. 바로 그 무의미성과 구속성이 오히려 이름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처자의 반격은 앞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강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범인(凡人)들은 여전히 이름에 이끌릴 것이고 벗의 말처럼 선굴당은 저장거리처럼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분분하게 남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요, 그의 실체는 더욱 감춰질 것이다.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영처자를 그 자체로 보아줄 사람이라면 평생에 얻기 힘든 지기(知己)일 것이다. 그의 말은 그저 그러한 인물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따름이다.

요컨대 「선굴당기」의 주제를 이름의 공허함과 구속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영처자의 답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

18) 「답창에지삼(答蒼厓之三)」에서 인용한 예화이다.

19) 「중북소선서」의 도입부에서 제시한 주장이다. 이 글은 이덕무가 지은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김철조, 「『鍾北小選』 서문의 작자 문제」, 『동양한문학연구』 38, 동양한문학회, 2014, 5~33쪽에서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박지원의 작으로 간주한다.

다. 그렇다고 해서 선굴이라는 당호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영처자의 답변은 희미한 가능성, 이름을 지은 주체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바람의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 글은 답하고 있지 않다. ‘선굴당’이라는 당호는 다만 그러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글의 저자인 연암이 ‘이름 짓는 행위’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²⁰⁾ 그렇다면 「선굴당기」의 주제는 ‘이름 짓는 행위에 대한 회의와 그 한계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모색’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영처자의 대답은 단정적인 어조가 아니라 여운을 남기는 듯한 함축적인 말로 마무리된다. 그의 말은 저자 박지원이 조심스럽게 제기한 이름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또한 그 가능성은 이름의 무의미성이 불러온 역설적 가능성이다.

한편 「선굴당기」에서 대사의 입을 빌어 설파한 이름의 무용성에 대한 논의는 다른 글에서도 변주되어 나타난다. 아래는 「관재기」의 전반부이다.

을유년(1765) 가을, 나는 팔담을 거슬러 올라가 마하연으로 들어가서 치준대사를 방문하였다. 대사는 손가락으로 감중련을 하고 눈으로는 코끝을 보고 있었다. 어린 동자가 곁에서 화로를 헤치고 향을 피우는데, 그 연기가 머리를 묶은 듯 등글고 버섯이 돋은 듯 자욱하였다. 붙들지 않아도 끈고 바람이 없는데도 저절로 물결을 이루어서 너울너울 한들한들하며 이겨내지 못할 듯하였다. 동자가 문득 묘한 깨달음이 있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공덕(功德)이 가득하니 움직임이 바람으로 돌아가도다! 내가 깨달았으니 한 톨의 향에서 무지개가 일도다.”²¹⁾

20) 박지원은 「취미루기(翠眉樓記)」(《종북소선》 수록)에서 남들과 똑같지 않은, 자신만의 안목과 취미를 담은 당호를 지은 이유동(李儒東)을 기특하게 여기고 있다. 연암이 ‘이름 짓기를 부정하고 있지 않음을 여기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21) “공덕(功德)이……일도다.” : 이 부분은 역자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번역된다. 본고에서는 박희병 외 편역, 『연암산문 정독: 역주·고이·집평』, 돌베개, 2007, 228쪽의 번역을 따랐다.

대사가 눈을 뜨고 말했다.

“애야, 너는 향냄새를 맡았지만 나는 그 재를 보며, 너는 그 연기를 좋아하지 만 나는 그 공(空)을 본다. 움직임이 이미 적멸했으니 공덕을 어디에 베풀랴.” 동자가 말했다. “감히 묻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사가 말했다.

“너는 그 재의 냄새를 맡아보아라. 다시 무슨 냄새가 나느냐? 너는 그 공(空)을 보아라. 다시 남아있는 것이 있느냐?”

동자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옛적에 스승님께서 제 정수리를 쓰디듬으며 오계를 내려주시고 제 범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지금 스승님께서 ‘이름은 내가 아니고 나라는 것은 공이다. 공은 형체가 없으니 이름을 어디에 베풀랴.’라고 하시니 청컨대 그 이름을 가져가 십시오.”²²⁾

「관재기」는 박지원이 서상수(徐常修, 1735~1793)에게 지어준 기문이다. 1765년의 일을 적었다 하였고, 『중복소선』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765년부터 1771년 사이에 지어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필사본 『중복소선』에 수록된 원제목은 ‘관물헌기(觀物軒記)’이다. 서상수는 바로 「필세설(筆洗說)」의 주인공으로, 골동서화에 대한 감식안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당호 ‘관물헌’ (혹은 관헌(觀軒)·관재(觀齋)) 역시 그러한 취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재기」에서도 박지원은 그 당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대신 치준대사와 동자의 일화를 통해 ‘觀’에 대한 자신의 의론을 펼치고 있다. 「선굴당기」와 같은 방식이다.

22) 歲乙酉秋, 余溯自八潭入摩訶衍, 訪緇俊大師. 師指連坎中, 目視鼻端. 有小童子, 撥爐點香, 團如縮髮, 鬱如蒸芝. 不扶而直, 無風自波, 蹲蹲婀娜, 如將不勝. 童子忽妙悟, 發笑曰: “功德既滿, 動轉歸風, 成我浮圖, 一粒起虹.” 師展眼曰: “小子, 汝聞其香. 我觀其灰. 汝喜其烟. 我觀其空. 動轉既寂, 功德何施.” 童子曰: “敢問何謂也.” 師曰: “汝試嗅其灰. 誰復聞者. 汝觀其空. 誰復有者.” 童子涕泣連曰曰: “昔者夫子摩我頂, 律我五戒, 施我法名. 今夫子言之‘名’則非我, 我則是空. 空則無形, 名將焉施. 請還其名.” (『燕巖集』卷7 別集《鍾北小選》, 「觀齋記」)

이야기는 동자의 깨달음으로 시작된다. 동자는 너울거리며 올라갔다 곧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는 향 연기를 보며, 그것이 사대(四大)의 하나인 풍(風)으로 돌아감을 발견한다. 허공의 무지개는 사대가 인연을 더해 만들어진 것으로, 실체가 없는 허상을 비유한 것이다.²³⁾ 향불의 공덕이 쌓여 향 연기를 이루고 그것이 본원으로 돌아가듯이, 자신 역시 공덕을 쌓아 적멸의 세계로 들어가리라는 깨달음이다. 그러나 대사의 관점은 다르다. 그는 눈앞에 아른거리는 향 연기를 보지 말고 타고 남은 재를 보라고 한다. 향 연기는 일체의 현상이며, 재는 일체개공(一切皆空)의 표상이다. 동자는 “成我浮圖”를 기약했으나 아(我) 역시 공(空)한 것이다.²⁴⁾ 공덕을 성취하여 번뇌를 없애고 적멸의 경지에 들고자 하는 제자에게 스승은 갑자기 네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공이니 공덕을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되물은 것이다. 동자가 갑작스레 명(名)의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동자는 스승의 말을 “명(名)은 내가 아니고 나라는 것은 공(空)이다. 공은 형체가 없으니 명을 어디에 베풀랴.”라고 해석하고, 이에 자신이 받은 법명(法名)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치준대사는 아(我)의 공(空)함을 강조하였고, 동자는 그것으로부터 아(我)를 규정하는 명(名)의 무의미함을 도출해 낸 것이다. 논의의 출발과 논리 전개 과정은 다르지만 이름의 무의미함이라는 결론은 「선굴당기」와 동일하다. 「선굴당기」의 대사가 법명을 구하는 열경에 대하여 이름 일반의 무의미성을 들어 질책하였다면, 「관재기」는 공(空)을 바라본대(觀)는 관점

23) 사대(四大)는 불교에서 존재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 요소를 가리키는 말로서 지(地)·수(水)·화(火)·풍(風)을 뜻한다. 사대 및 무지개에 관한 설명은 신호열·김명호 옮김(2007), 앞의 책, 95~95쪽; 박희병 외 편역(2007), 앞의 책, 229쪽 참조.

24) ‘공(空)’은 ‘유(有)’와 대칭되며, 실질적인 본체와 스스로의 성질[自性]이 없는 것을 뜻한다. 현재 존재하는 것은 다양한 조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건이 변하면 존재도 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성이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아(自我)도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태경·조기영, 『알기쉬운 불교용어 산책』, 양사재, 2011, 128쪽 참조.

에서 출발하고 있어 한층 불교적인 색채가 짙다는 것이 차이이다. 앞서 「선 굴당기」가 이름에 대한 회의와 그것의 극복 가능성에 대한 박지원의 모색이 담겨 있는 글임을 논했다. 그렇다면 「관재기」는 어떨까. 이어지는 대사의 말 또한 ‘이름’에 대한 단순하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다.

너는 순순히 받아서 그것을 보내라. 내가 육십 년 동안 세상을 보았는데 사물 중에 남아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도도하게 떠나버렸다. 해와 달이 가는데 그 바퀴를 멈출 수가 없고, 내일의 해는 오늘의 해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迎’은 ‘逆’이고, ‘挽’은 ‘勉’이고, ‘遣’은 ‘順’이다. 너는 마음에 머물러 두지 말고 기운에 막힘이 없게 하라. 命을 따라 순응하여 命으로써 나를 보고, 理에 따라 보내서 理로써 사물을 보라. 그리하면 흐르는 물이 손가락 가리키는 데 있고 흰 구름이 일어날 것이다.²⁵⁾

스승에게서 받은 범명을 돌려준다는 제자의 말에 대하여 대사는 “順受而遣之”라고 충고한다. 여기서 ‘之’가 가리키는 것은 ‘이름’과 ‘자야’를 비롯한 일체의 사물이다. 모든 사물은 고정된 형태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한다. 迎은 ‘맞이하다’, ‘미리 헤아리다’라는 뜻이 있다. ‘逆’ 역시 ‘迎’과 마찬가지로 ‘맞이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거스르다’라는 뜻도 있다. 즉 앞일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말이다. ‘挽’은 당기는 것이고 ‘勉’은 억지로 힘을 쓰는 것이다. 사라지고 변하는 것을 붙잡는 것은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다. 한편 ‘遣’은 ‘보내다, 놓아주다’라는 뜻이고 ‘順’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다. 보내야 할 때 보내는 것, 변하는 것을 붙잡지 않고 그대로 놓아주는 것이야말로 명(命)과 리(理)에 따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떠나보내지 말고 마음에 머물러 두어서도 안 되고, 변하지 않도록 기운을 꼭 묶어

25) 汝順受而遣之。我觀世六十年，物無留者，滔滔皆往。日月其逝，不停其輪。明日之日，非今日也。故迎者逆也；挽者勉也；遣者順也。汝無心留，汝無氣滯。順之以命，命以觀我；遣之以理，理以觀物。流水在指，白雲起矣。

두는 것도 불필요하다.

대사는 이상의 가르침을 “명(命)을 따라 순응하여 명(命)으로써 나를 보고, 리(理)에 따라 보내서 리(理)로써 사물을 보라[順之以命, 命以觀我; 遣之以理, 理以觀物.]”는 말로 요약한다. 아(我)와 물(物)은 모두 공(空)하다. 그러나 허무함에 빠질 필요는 없다. 사물의 소장(消長)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여라. 아(我)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너의 범명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름이란 마음대로 버리거나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지금의 네 범명도 끝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아(我)의 한 단계를 암시하는 것일 뿐이다. 그대로 두되 그것에 얽매이지는 말며, 보내야 할 때에 보내되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선굴당기」에서 말한바 매미의 허물이나 굴의 껍질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²⁶⁾

「선굴당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박지원은 대사의 입을 빌려 불교적 사유를 펼쳐놓는다. 스스로 불교적인 언술을 펼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관재기」에서 대사의 마지막 말은 박지원 스스로의 견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열경과 대사의 이야기처럼 치중대사의 설법 자체가 모두 저자의 창작인지도 알 수 없다. 다른 글에서 발견되는 명(名)과 사물의 변천에 관한 연암의 사고를 적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명(命)과 리(理)에 따르라는 말은 ‘공함을 본대[觀空]’라는 불교적인 의미의 ‘觀’과는 이질적이다. 그렇다고 성리학에서 말하는 하늘의 명(命)과 사물의 리(理)를 말하는 것 같지도 않다. 사물은 끝없이 유전(流轉)하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사고, 그것을 체득하고 거스르지 않는 것을 리(理)와 명(命)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空)으로서의 아(我)와 명(名)은 이러한 관점에서 긍정될 수 있다. 집착하지 않되 애써 그것을 버리지도 않는 것이다. 변화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26) 「관재기」의 주제는 ‘名’이 아니라 ‘觀’이다. 다만 본고는 ‘명’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검토하였다.

역사와 사물을 바라보는 연암의 기본적인 관점²⁷⁾이다.

이상 두 편의 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글이 있다. 바로 『종북소신』 수록 「선굴당기」에 붙인 이덕무의 평이다. 「선굴당기」는 이덕무 자신의 당호에 관한 기문인바, 그는 이 글의 제1차 독자(내포독자)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굴당기」는 이름에 관한 박지원의 사고를 담은 글이며, 글 속에 나오는 영처자의 대답 역시 이덕무의 실제 말이 아니라 연암의 창작이다. 이덕무의 평은 이러한 박지원의 글에 ‘호응’하여 지어진 것이다. 이 평어를 읽어봄으로써 역으로 「선굴당기」의 본지(本旨)를 추적할 수 있다.

청한자, 동봉, 설잡, 매월당, 오세암이라 한 것은 모두 열경이다. 형암, 청장관, 탑좌인, 재래도인, 무일산인, 무문, 요매산사, 영처, 선굴당이라 한 것은 모두 무관이다. 책, 복육, 진, 혜고, 한장, 조료, 영모, 면, 마조, 언, 당조, 낭조, 모조, 맥찰, 모침, 전목, 해록, 설결, 예, 제너라 한 것은 모두 매미이다. 황굴, 주굴, 녹굴, 유굴, 탑굴, 유굴, 색굴, 면굴, 사굴, 산굴, 조황굴, 천심굴, 황담굴, 예지굴이라 한 것은 모두 굴이다. 열경은 처지가 변하거나 상황이 바뀔 때마다 반드시 호 하나를 지었는데, (이전의 호를) 써서 물에 가라앉혀버리고는²⁸⁾ 아까워하지 않았다. 무관은 시를 읊고 글씨를 쓸 때마다 반드시 호 하나를 지었는데 흠어서 남에게 주어 스스로 기록(기억)해 두지 않았으니, 모두 이름이 없고자 한 것이

27) 사물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연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청나라 및 중국 역사에 대한 연암의 관점 역시 이러한 바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연암 작품에 관한 여러 논고와 해설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언급되어왔다.

28) 이 부분의 원문은 “書而沈水”이다. 박희병 외 역주, 『종북소신』, 돌베개, 2010, 55쪽에서는 “새로 지은 호를 종이에다 써서 가라앉힘으로써”라고 번역하였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덕무의 행위와 호응하도록 번역하려면 ‘새로 지은 호’라고 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김시습은 처지의 변화에 따라 이름을 바꿨다고 했으므로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과거의 호를 물에 가라앉혔다고 보는 편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고 보아 이렇게 번역하였다.

었다. 그러나 열경은 『추강행화』에 남아있고, 무관은 『공작관집』에 남아있으며, 매미는 양자(양옹)의 『방언』에, 굴은 한씨(韓彦直)의 『굴보』에 남아있으니 모두 뛰어난 작가들이다. 그러나 열경은 유자이면서 불자였고 무관은 옛날 사람이면서 지금 사람이다. 매미는 깨끗하면서 물러날 줄 알고 굴은 향기로우면서 진 피를 남기니 그 품격은 모두 같다.²⁹⁾

이덕무는 먼저 김시습의 호와 자신의 호를 열거하고, 이어서 매미와 굴의 다양한 명칭을 나열하였다.³⁰⁾ 두 사람이 호를 많이 가진 것, 매미와 굴의 이름이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것은 「선굴당기」의 대사나 벗의 관점으로는 비난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사뭇 다르다. 김시습은 자신의 이름을 써서 물에 가라앉히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이 그 이름을 ‘아끼지/아까워하지[惜]’ 않는다는 뜻을 드러냈다. 상황이 나 처지가 변할 때마다 새로운 호를 지은 것이므로 내가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라면 그때까지의 이름 역시 껌테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선굴당기」의 일화에서 열경은 범명을 구했다가 대사의 질책을 받았다. 그러나 애초에

29) 曰清寒子, 曰東峯, 曰雪岑, 曰梅月堂, 曰五歲庵, 皆悅卿也. 曰炯菴, 曰靑莊館, 曰塔左人, 曰晬觀道人, 曰無一散人, 曰無文, 曰盲昧散士, 曰嬰處, 曰蟬橋堂, 皆懋官也. 曰蚱, 曰腹蝸, 曰螻, 曰螻蛄, 曰寒蟻, 曰蝮蟻, 曰蟻母, 曰蝮, 曰馬蝮, 曰蠅, 曰蟻蝸, 曰茅蝸, 曰麥蝸, 曰茅蟻, 曰蝮蝮, 曰蝮蝮, 曰蝮蝮, 曰齊女, 皆蟬也. 曰黃橘, 曰朱橘, 曰綠橘, 曰乳橘, 曰塌橘, 曰油橘, 曰色橘, 曰綿橘, 曰沙橘, 曰山橘, 曰早黃橘, 曰穿心橘, 曰黃淡橘, 曰荔支橘, 皆橘也. 悅卿一變一遞, 必有一號. 書而沈水, 不自惜焉. 懋官一咏一寫, 必有一號. 散而與人, 不自記焉. 皆欲其無名也. 然悅卿在秋江冷話, 懋官在孔雀館集, 蟬在揚子方言, 橘在韓氏橘譜. 皆作者之尤也. 然悅卿儒而佛者也. 懋官今而古者也. 蟬潔而爲退, 橘馨而爲陳. 其爲品皆同也. (『蟬橋堂記』眉評, 洪大容 舊藏本『鍾北小選』) 원문은 박희병 외 역주(2010), 앞의 책, 62~63쪽. 번역은 필자. 『벽매원잡록(碧梅園雜錄)』에 수록된 원문은 위 글과 글자의 출입이 꽤 있으나, 글 전체의 뜻은 동일하다.

30) 여기서 제시한 매미와 굴의 이름은 대부분 같은 대상의 이칭(異稱)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품종의 명칭이다. 즉, 사람의 호와 나란히 거론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닌데, 이를 나열한 것은 일종의 유희라고 할 수 있다.

이름에 집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 이름을 짓는 행위 또한 그리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이덕무, 즉 영처자는 시나 글씨를 쓸 때에 그것의 저자를 표시하기 위해 새 이름을 지었으며, 그 작품을 떠나 보내면서 그 이름도 함께 훌어버렸다고 한다. 김시습과 마찬가지로 이덕무의 이름 또한 일시적인 기호일 뿐 영속적인 ‘나’의 표상이 되지 못한다. 이는 이름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무명(無名)’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덕무의 이러한 진술은 마치 「선굴당기」 속 영처자의 답변에 대한 부연 설명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이덕무의 논평에도 역시 반전이 있다. 비록 이들이 무명을 추구했으나 그 이름들은 대가의 손을 빌려 오롯이 보존되었다. 이름을 남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뛰어난 안목을 가진 작자’에 의해서 이들의 ‘품격’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남효온(南孝溫)은 김시습에게, 박지원은 이덕무에게 지기가 되는바, 두 작자는 허물과 껍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들의 특질을 찾았던 것이다. 마지막에 이덕무가 나열한 것은 안목 있는 이들이 발견한 그들의 특질이다. “今而古者”라는 평은 박지원이 「영처고서」에서 고(古)와 금(今)의 관계에 대해 논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³¹⁾ 연암은 영처자의 본 뜻을 그 이름 바깥에서 찾고자 노력하고 그 이름을 후세에 남겨주었다. 껍질에 싸여 보이지 않던 그 대상의 품격을 찾아서 기록해 준 것이다. 무명(無名)을 추구하는 행위가 오히려 유명(有名)을 가능케 했다. 「선굴당기」의 본뜻에 가깝다고 할 만하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김시습과 이덕무의 행위에서 「관재기」의 깨달음이 연상된다는 점이다. 김시습이 자신의 호를 “書而沈水”한 것과 이덕무가

31) 「영처고서」 역시 《종북소선》에 수록되어 있다. 『공작관집』이라고 한 것은 특정한 소집(小集)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박지원의 문집을 뜻하는 말로 쓰인 것이다. 여기서 연암은 이덕무의 작품에 대해 옛것을 답습하지 않고 ‘지금’의 시를 씀으로써 『시경(詩經)』과 비견할 만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하였다.

자신의 호가 적힌 작품들을 “散而與人”한 것은 마치 “順受而遣之”하라는 치준대사의 가르침을 실천한 듯하다. 이름을, 그리고 그것에 담긴 자아의 상을 부정하지 않되 집착하고 머물러 두지도 않는 것이다. 요컨대 「선굴당기」의 주제와 「관재기」에 담긴 명에 대한 사고가 만나는 지점을 이덕무의 위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3. 명(名)의 영속성에 대한 회의와 사색 : 「발승암기」와 「영재집서」

이름에 대한 사고는 ‘이름을 남기려는 행위’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선굴당기」와 「관재기」에서 문제 삼은 것은 ‘살아있을 때의 이름’이다. 반면 본 장에서 다루려는 대상은 ‘사후의 이름’에 관한 연암의 사고이다. 이 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글은 「발승암기」이다.³²⁾ 「발승암기」는 김홍연(金弘淵)이라는 인물의 요청으로 써준 기문이다. 그는 호협한 인물이었으나 세상에 쓰이지 못했고, 명승지의 돌벽에 집요하게 자신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뒷날의 ‘알아춤’을 구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 재산을 탕진하고 한쪽 눈까지 멀어 암자에 붙어사는 처지로 전락했다. 박지원은 심산궁곡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통해 김홍연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치자 알은체를 한다. 김홍연은 자신의 곤궁한 처지를 말하면서 이제 다 죽게 되었으니 박지원의 글을 빌려 후세에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며 기문을 부탁해온다. 이에 박지원은 자신이 그를 알게 된 내력을 쓰고 계(僞)를 지어준다.

김홍연의 기행(奇行)을 다룬 이 글은 ‘명(名)의 영속성’을 문제 삼고 있

32) 「발승암기」의 주제와 특질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김종민, 「「髮僧菴記」의 改作 樣相과 主題에 대한 비평적 분석」, 『한국한문학회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을 들 수 있다. 기존 논의에 대한 요약은 이 논문의 202~205쪽 참조.

다. 아래 인용문은 박지원이 김홍연을 실제로 만나기 전에 지나던 길손과 나누는 대화이다.

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김홍연이요.” “이른바 김홍연이란 누구요?” “자를 대심이라고 하는 자요.” “대심이란 자는 누구요?” “발승암이라 호호한 자요.” “이른바 발승암은 누구요?” 말하던 자가 답할 말이 없었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옛날 장경(張卿: 사마상여)은 무시공(無是公)과 오유선생(烏有先生)이란 사람을 가설하여 서로 논란하게 하였소. 지금 나와 당신이 오래된 절벽의 계곡물 사이에서 우연히 만나 묻고 답한 일을 나중에 생각해보면 모두 오유선생 같은 것이겠지요. 어디에 이른바 발승암이란 자가 있겠소?” 객이 발끈하고 성년 기색을 띠며 말했다. “내가 어찌 허황된 말로 지어내었겠소? 이 사람은 진짜 있었던 말이요.”

내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너무 짐요하군요. 옛적 왕개보(王介甫: 왕안석)가 「극진미신(劇秦美新)」을 변증하여 분명 곡자운(谷子雲)이 지은 것이지 양자운(楊子雲)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소자침(蘇子瞻: 소식)이 말하길 ‘서경에 과연 양자운이란 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소. 저 두 사람의 문장은 당대에 성대하게 빛나고 그 이름이 역사에 실려 있는데도 뒤에 논하는 자들에게 이런 의심이 있었지요. 하물며 심산궁곡에 부질없이 새겨둔 이름이 비바람을 맞아 백 년도 못 가 마멸되고 마는 것임에랴.”

길손 또한 크게 웃고 떠났다.³³⁾

지나던 객은 평소 김홍연의 행적을 알고 있어 박지원에게 이를 상세히

33) 余問是人爲誰。曰：“金弘淵。”“所謂金弘淵爲誰。”曰：“字大深。”曰：“大深者誰歟。”曰：“是自號髮僧菴。”“所謂髮僧菴誰歟。”談者無以應。則余笑曰：“昔長卿設無是公烏有先生以相難。今吾與子偶然相遇於古壁流水之間，相答問焉。他日相思，皆烏有先生也。安有所謂髮僧菴者乎。”客勃然怒於色曰：“吾豈謊辭而假設哉。果真有是人也。”余大笑曰：“君太執拗。昔王介甫辨《劇秦美新》，必谷子雲所著，非楊子雲。蘇子瞻曰：‘未知西京果有楊子雲否也。’夫二子之文章，炳蔚當世，流名史傳，而後之尚論者猶有此疑。而況寄空名於深山窮壑之中而風消雨泐，不百年而磨滅者乎。”客亦大笑而去。（『燕巖集』卷1《煙湘閣選本》，「髮僧菴記」）

전달해 주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박지원은 당신이 말한 김홍연이란 사람은 대체 누구냐고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그의 이름, 자와 호가 차례로 거론된다. 그러나 그의 다양한 명칭을 열거하고 나자 길손은 말이 막히게 된다. 그러자 박지원은 우리 두 사람의 대화란 마치 무시공(‘이런 사람은 없다’는 뜻)과 오유선생(‘어디에 있는가’라는 뜻), 즉 실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대화와 다를 것 없는데, 이들이 말하고 있는 발승암이란 이가 과연 존재하겠는가 하고 말한다. 길손이 자신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며 반발하자, 박지원은 양자운과 같은 혁혁한 인물도 후대에 ‘과연 이 사람이 실제 있었던가’하고 의심받는 마당에 깊은 산 벼랑에 새겨놓은 이름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며 자기 말의 의도를 풀이해 준다.

기존 연구에서 김종민은 「발승암기」가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김홍연의 태도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지어진 것이 아님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 글의 주제를 제주와 포부를 지닌 인물이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비탄이라고 보았다. 위 문답은 “후세에 영원불멸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니 너무 그것에만 골몰할 필요는 없다.”라는 가벼운 훈계의 뜻으로서 김홍연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이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펼친 것³⁴⁾이라는 시각이다. 필자 역시 「발승암기」가 이름에 집착하는 김홍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위 문답은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이름의 영속성’에 대한 연암의 고민을 풀어낸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름을 남기려는 행위는 곧 타인의 ‘알아춤[知]’을 구하는 것이다. 이는 ‘인정 욕망’에 관한 것으로, 이름의 문제는 여기에 맥이 닿아 있다. 「공작관 문고자서」, 「낭환집서」가 ‘알아춤’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이며, 「회성원집발(繪聲園集跋)」에서 제기한 지기(知己)의 문제도 이와 관련이 있다.³⁵⁾ 제주

34) 김종민(2013), 앞의 논문, 213~218쪽.

35) 박지원 산문에 나타난 인정 욕망의 구조에 대해서는 류준필, 앞의 논문에서 상세히

있는 자가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박지원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의 ‘불가능성’과 주체가 처한 그러한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한 방식을 모색했다.³⁶⁾ 그러할진대 이름을 남기려는 김홍연의 행위 자체에 대해 박지원이 유독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일세를 풍미한 대작가들의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인데 고작 바위 글씨 따위로 불후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기에 ‘김홍연이란 자가 대체 누구냐’라는 물음에 대해 그의 자와 호로써 그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 헛된 시도임을 말하고 있다. 벼랑에 새긴 ‘김홍연’이라는 이름은 비록 오래도록 마멸되지 않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 「선굴당기」에서 논했던 이름의 무의미성이 환기되는 부분이다.

김홍연 스스로도 그러한 자신의 행위가 사실 무용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듯하다.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했으면서도 박지원이 자신을 알아보자 “그대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子何以知我]”고 묻는다. 그리고 마침내 “願托子文而傳焉”이라고 청한다. 물리적인 증표보다는 ‘글’에 의지하여 이름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스스로 문인이 아니었으므로 문인, 그것도 당대 유명한 문필가인 박지원의 글에 기대어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에 박지원은 계를 써주는데, 그 마지막 구절은 이렇하다. “중생은 각자 멋대로 살아가니, 억지로 같아지려 애쓸 필요 없네. 대심은 이미 무리와 다르니, 이 때문에 사람들의 의혹 산 게지.[衆生各自得, 不必強相學. 大深既異衆, 以茲相誣惑.]” 김홍연의 삶에 대한 긍정과 위로의 말이다.

요컨대 「발승암기」의 김홍연은 허명(虛名)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인간으

논하였다. 명에 대한 논의 역시 인정 욕망과 관련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도 그러한 관점에서 명과 관련한 부분을 거론하였다.

36) 구체적인 내용은 류준필(2008), 1~47쪽. 앞의 논문 참조.

로 그려진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김종민의 논의대로 박지원은 오히려 그의 비탄에 통렬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김홍연의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³⁷⁾ 여기서 “吾悲其志老猶不忘者存”이라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암의 필사본 소집 『엄화계집(嚴晝溪集)』 곤(坤)에 수록된 「발승암기」의 초고 「발승암명병서(髮僧菴銘并序)」에는 이 구절이 “吾悲其志老猶未忘于名”으로 되어 있다. 김종민은 이에 대해 “이 글이 독자들에게 이름에의 집착을 비판한 글로 읽힐까 우려하여 연암이 고심 끝에 변제한 것”³⁸⁾이라고 분석하였다. 여기에 더해 ‘아직 잊지 못했다[未忘]’는 표현에 비해 ‘잊지 않고 있는 것[不忘者]’이라는 표현이 김홍연의 ‘의지’를 더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명(名)이라고 딱 집어서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志’의 함축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승암기」의 주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편에서 화두로 되어있는 이름의 영속성이라는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객과의 문답으로 제시한 이름의 허망함은 김홍연에게만 향한 지적인가? 불우한 인재를 드러낸다는 의도가 핵심이라면, 명에 관한 서술이 이토록 곡절(曲折)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자가 논하고 있는 명의 문제는 단지 불우한 인재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 바위 글씨가 아니라 유명 문인의 글을 통해 제 이름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김홍연은, 이번에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까. 박지원은 그의 청대로 글을 써주었지만 과연 이 글이 그의 삶을 불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박지원은 이 글을 통해 김홍연의 삶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글 전편에는 이름의 영속성에 대한 의심이 서려 있고, 이것은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발승암기」는 한 인간의 행적을 그려냄으로써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행

37) 김종민(2013), 앞의 논문, 224쪽.

38) 같은 글, 213쪽.

위의 허망함, 그렇게 남긴 이름의 불영속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은 이름에 집착하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욕망을 긍정적인 바탕에서 그것의 성취 불가능성을 안타까워한 것이다.³⁹⁾ 김홍연은 기인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름을 추구하는 보통의 인간이 가진 비애를 안고 있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개성 출신 인물로서 사회적 차별로 인해 ‘불우’한 인물이다.⁴⁰⁾ 그러나 사회적 처지와 무관하게 모든 문인 지식인들은 당대의 지기를 갈망하는 한편 후세에 ‘영원토록’ 자신의 이름을 남기겠다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을 품고 있다. 김홍연은 문인이 아니라 무인이었기에 작품 창작 대신 험난한 곳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행위로 자신의 ‘대담함’을 뽐냈던 것이다. 전자의 현실에 대한 비판은 「의청소통소(擬請疏通疏)」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바 연암의 사회개혁론과 상통한다. 후자는 문론(文論)이나 인식론과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발송암기」는 잡기(雜記) 양식을 전(傳)의 양식과 결합하여 서술한 글로서⁴¹⁾ 박지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불우한 인물의 삶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처지에 있음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이름의 불영속성이라는 본질적인 차원의 근거를 들어 그를 동정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²⁾

39) 그러한 비애를 주된 정조로 하면서도, 김홍연을 알게 되는 과정이나 객과의 문답이 유머러스한 필치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 이 글의 독특한 면모이기도 하다.

40) 박지원은 중인 시인 이언진의 전기인 「우상전(虞裳傳)」을 통해서도 이러한 인물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서얼인 서상수에 대한 품평을 담은 「필세설」도 마찬가지이다.

41) 강혜선, 『朴趾源 散文의 古文 변용 양상』, 태학사, 1999, 133쪽.

42) 애초에 박지원은 「발송암명병서」에서 “松京, 金松京人也.”라고 썼다가 개작 과정에서 산삭하였는데(김중민(2013), 앞의 논문, 219쪽) 이러한 개작은 김홍연의 비애를 그 사회적 근거뿐 아니라 이름의 불영속성이라는 인간 본연의 한계에 접목하려는 의도에서 안배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한편 이 글 역시 「선굴당기」와 「관재기」와 마찬가지로 ‘이름 남기기’의 불가능성을 단정하는 데서 논의를 마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비록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고, 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시도로서 그려진다. 객과의 문답에서 실체 없는 존재의 표상으로 이야기되었던 ‘발승암’이라는 ‘이름’은 마지막 계(僞)를 통해 구체적 형상을 얻는다. 이것은 이름 남기기를 갈구했던 김홍연의 집요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이름 남기기’의 행위에 저자 박지원 역시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유보’라고 할 수 있는 태도이다. 박지원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름의 허망함과 불영속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추구하는 인간 존재, 그중에서도 자신을 포함한 문인 지식인들의 존재 양상에 내포된 모순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름의 영속성에 대한 사유는 유득공(柳得恭)의 문집에 붙인 서문인 「영재집서」에서도 확인된다. 이 글은 직접적으로 명(名)에 대해 논한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 기억되는 것’을 소재로 하고 있어 그 함의가 상통한다.⁴³⁾ 아래는 전반부의 이야기이다.

돌 다듬는 사람이 글자 새기는 사람에게 말했다.

“천하의 물건 중에 돌만큼 단단한 것은 없다네. 그 견고한 것을 베어내어 자르고 쪼아서 이수와 귀부를 만들어 신도에 세워 영원토록 손상되지 않게 하니, 이것은 나의 공이라네.”

글자 새기는 사람이 말했다.

“오래되어도 닳지 않는 것은 새기는 것만한 것이 없지. 대인이 훌륭한 행동을

43) 본고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영재집서」는 ‘명’의 문제와 관련하여 함께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은 듯하며, 만일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논의 대상을 넓힌다면 굳이 이 작품에만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다. 필자는 이 지적에 전적으로 수긍하는 바, 연암의 다른 산문들까지 포괄하여 ‘이름-기억’의 문제에까지 논의를 확장할 때에 본 장의 분석이 타당성을 갖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여기서는 부족한 대로 논의를 매듭짓고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하면 군자가 명으로 새기는데, 내 공이 아니라면 장차 어찌 비석을 만들겠는가.”

그렇게 다투다가 드디어 마렵자(봉분)에게 시비를 가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마렵자는 묵묵히 말이 없었으니, 세 번 불러도 세 번 다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석옹중(돌장승)이 꺾꺾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천하의 단단한 것으로 돌만한 것이 없다고 했지. 또 오래되어도 닳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 했고 비록 그러하나 돌이 과연 단단하다면 깎아서 비석을 만들 수 있을까. 만약 글자가 닳지 않는다면 어찌 새길 수 있겠는가. 이미 깎아내고 새겼다면 또 어찌 아궁이 만드는 자가 가져다가 쓸 앓히는 받침돌로 쓰지 않을 것임을 알겠는가.”⁴⁴⁾

비석을 세워 죽은 사람의 업적을 길이 남기는 행위는 「발승암기」의 김홍연이 명산의 벼랑에 이름을 새긴 것과 그 목적이 같다. 비석이라는 물건과 그것에 새긴 글씨는 당연히 영원할 수 없다. 바람과 비에 훼손되는 바위 글씨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여기서 비석의 영속성이란 그것에 새긴 이름의 불후함을 상징한다. 비석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것에 적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다음은 위 이야기에 이어지는 글의 후반부이다.

양자운(양웅)은 옛것을 좋아하는 선비로서 기이한 글자를 많이 알았다. 마침 『태현경』을 쓰고 있었는데 정색을 하며 얼굴빛이 바뀌더니 개연히 크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아! 오(烏: 양웅의 아들)야, 너는 알고 있어라. 석옹중의 풍자를 들은 자들은 아마도 『태현경』을 장독 덮는 데에 쓸 것이다.”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봄날 『영재집』에 쓰다.⁴⁵⁾

44) 匠石謂剗闕氏曰：“夫天下之物，莫堅於石。爰伐其堅，斷而斲之，螭首龜趺，樹之神道，永世不騫，是我之功也。”剗闕氏曰：“久而不磨者，莫壽於刻。大人有行，君子銘之，匪余攸工，將焉用碑。”遂相與訟之於馬鬣子。馬鬣子寂然無聲，三呼而三不應。於是石翁仲啞然而笑曰：“子謂天下之至堅者莫堅乎石。久而不磨者莫壽乎刻也。雖然石果堅也，斲而為碑乎。若可不磨也，惡能刻乎。既得以斲而刻之，又安知築窳者不取之以為安鼎之題乎。”(『燕巖集』 권7 《鍾北小選》，「泠齋集序」)

45) 揚子雲，好古士也，多識奇字。方艸《太玄》，愀然變色易容，慨然太息曰：“嗟乎！烏，

양웅(揚雄)은 후대의 지음(知音)을 기다리는 자의 대명사로서 박지원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예시이다.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이해하지 못해서 장독 덮개로나 쓸 것이라는 말은 그의 벗 유희(劉歆)이 한 말이다. 이에 대해 양웅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후세에 다시 양자운이 있어 반드시 내 글을 좋아할 것이다.[世不我知, 無害也, 後世復有揚子雲, 必好之矣.]”라고 답한다. 그러나 「영재집서」에서는 이 예화를 뒤집어서 양웅 스스로가 자기 글이 장독 덮개로 쓰이리라고 예상한 것으로 제시했다. 자기 글, 즉 자기 이름의 영속성을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인물을 등장시켜 그러한 기대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장치로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이 듣는 이들의 웃음을 유발했던 것인데, 저자 박지원을 포함해서 이들 모두 ‘글’을 써서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문인 지식인이었던바 이 웃음은 스스로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다.

하필 문집의 서문에 이 글을 써주었다는 것도 묘하다. “이 서문을 붙인 문집 또한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재치 있는 소품이라고 할 만한 이 글을 통해 연암은 이름의 불영속성에 대해 직시해야 함을 충고하고 있다. 그러나 하필이면 문집의 서문으로 썼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글을 쓰는가, 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가, 어째서 그토록 ‘알아줌’을 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생겨난다. 만약 이름이 영원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뒷날의 알아줌을 기다리는 것은 부질없는 행위이며, 지금 이 순간의 지기를 찾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세에서 지기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회성원집발」) 아니,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타자를 만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내 귀의 울림은 남이 들을 수 없고, 내 코끝이는 내가 들을 수 없기 때문이

爾其知之. 聞石翁仲之風者, 其將以玄覆醬瓿乎.” 聞者皆大笑. 春日書之《冷齋集》.

다.〔공작관문고자서〕 내가 죽은 후에 인정을 받는 것은 소경이 비단옷을 입은 것이요, 나만 이는 내 작품의 가치를 남들이 모르는 것은 비단옷 입고 밤길을 가는 격〔낭환집서〕이다.⁴⁶⁾ 유득공의 문집에 이런 글을 붙여준 것은 한편으로는 한때의 웃을 일로서의 유희적 행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문학의 창작과 비평, 이름과 알아줌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던져준 것과 다르지 않다.

덧붙이자면 「유씨도서보서(柳氏圖書譜序)」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읽을 수 있다. 이 글은 자신의 장서에 찍은 인장을 공들여 새기고 있는 유연(柳璉)에게 이덕무가 그러한 행위의 무용함을 깨우쳐주는 내용이다. 유연이 자신의 장서 수백 권에 인장을 찍어 대대손손 물려줄 것이라 장담하자 이덕무는 진시황이 화씨벽으로 옥새를 만들고 만세토록 나라를 물려주고자 했던 일을 말함으로써 그의 바람이 헛된 것임을 지적한다. 「유씨도서보서」는 자신의 소장물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지만 ‘인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겨 그 소유자를 표시하는 방식을 문제시하고 있어 이 글 역시 명의 문제와 무관치 않음을 보여준다.

「발승암기」는 이름의 영속성에 대한 회의를 강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겠다는 욕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김홍연이라는 인물은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라기보단 연민과 공감의 대상이다. 김홍연은 뛰어난 문인의 글에 의탁하여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남기고자 시도하였고, 박지원은 그에게 계를 써줌으로써 그 시도에 동참한다. ‘이름을 남기려는 행위’는 인간이 포기할 수 없는 근원적인 욕망의 산물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유희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재집서」 역시 ‘비석’으로 표상되는 이름의 불영속성을 말하고 있다. 사후의 알아줌을 구했던 인물인 양옹 자신이 스스로의 글이 장독 덮개로 쓰이리라 탄식했다는 이야기는 연

46) 인정 욕망의 이러한 모순에 관해서는 류준필(2008), 앞의 논문, 5~15쪽 참조.

암 특유의 비틀기와 유머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글이 유발하는 웃음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을 계속하고 그것을 통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문인 지식인들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4. 나가며: 「명론」의 관점

박지원 문학에 나타나는 명(名)에 관한 사고를 검토하기 위해서 또 하나 참조할 작품이 있다. 《공작관문고(孔雀館文稿)》 수록 「명론(名論)」이 그것이다. 이 글은 문예적 성격이 강한 위 네 편의 글과 달리 정론(政論)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천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명(名)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 글이다. 다음은 이 글의 첫머리이다.

천하라는 것은 텅 빈 큰 그릇이다. 어떻게 그것을 지탱하나. 이름[名]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름을 유도하나. 의욕[欲]이다. 어떻게 의욕을 기르나. 부끄러움[恥]이다. 만물은 쉽게 흩어져서 서로 붙어 있는 것이 없는데 이름으로 붙잡아 둔 것이다. 오류는 쉽게 어그러져서 서로 친할 수 없는데 이름으로 매어둔 것이다. 그런 연후에 저 큰 그릇이 능히 가득 차서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요 기울거나 무너지는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천하의 작록으로 선함을 두루 포상할 수 없으니 군자는 이름으로써 권면하며, 천하의 형벌로도 두루 악을 징벌할 수 없으니 소인은 이름으로써 부끄럽게 할 수 있다.⁴⁷⁾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통치의 방법은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의 두 가지

47) 天下者，桴然大器也。何以持之。曰名。然則何以導名。曰欲。何以養欲。曰恥。萬物之易散而莫可以相屬也，名以留之。五倫之易悖而莫可以相親也，名以係之。夫然後彼大器者，其能充實完好，而無欹覆壞缺之患也。天下之爵祿，莫可以遍賞乎爲善，則君子可以名勸，天下之刑罰，莫可以遍懲乎爲惡，則小人可以名愧。（『燕巖集』 권3 《孔雀館文稿》，「名論」）

로 대별된다. 원론적으로 유교는 피통치자를 인의(仁義)로 이끌고 예악으로 교화하며, 형정은 그것의 보조물로서 부득이한 경우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표방한 역대의 왕조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형정에 크게 의지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박지원은 예악뿐 아니라 형정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명(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⁸⁾ 박지원은 그 이유를 상술한 후, “상별로 다스리는 것은 다함이 있는 방법이요, 이름을 장려해 다스리는 것은 다함이 없는 방법이다.[刑賞而爲政者, 有窮之道也, 厲名而爲治者, 無方之道也.]”라며 자신의 견해를 강조했다.

이어서 박지원은 “의(義)라는 것은 공정하고도 크다. 명(名)이라는 것은 사사롭고도 비루하다. 그대의 논의대로라면 장차 천하를 이끌어 거짓[僞]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⁴⁹⁾라는 혹자의 반론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름을 좋아하는 것이 비록 어리석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를 아낄 것이며, 누구든 실상에 맞지 않는 과한 이름을 얻게 되면 그것을 사양할 것이라고 답한다.⁵⁰⁾ 즉, 인간은 ‘자신에게 걸맞은 이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름(명분)을 존중하며 이름(명예)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러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지는 뜻이 아니다. 명예의 추구가 물질적 보상에 대한

48) 위 인용문에는 본고의 서론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의미의 명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미가 혼용되고 있다. 欲과 恥가 유도하는 명이란 곧 명예나 명성을 뜻한다. 한편 만물을 결속시키고 오류를 유지하는 명은 명분이나 질서를 의미한다. 또,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고사를 들어 하루라도 이름이 제대로 분별되지 않으면 천하가 유지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명이란 말 그대로 사물의 명칭이다. 「명론」에서 이 개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49) 義之爲名也公而大. 名之爲名也私而鄙. 如子之論也, 將率天下而爲僞者也.

50) 所謂惡夫名者, 一人之好名也. 其蔽也駭, 猶將矜莊自愛, 污不至隨俗沉浮也. 今雖有好名之人, 猝然被之以過情之譽, 彼亦將退然而謙辭, 怒然而不自居矣. 夫何患乎相率而爲僞.

욕심이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더한, 인간 행동을 좌우하는 본질적 요소임을 인식하고 통치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암의 이 글은 통치의 방법을 논한 것이므로 본고에서 살펴본 명에 관한 논의와 그 층위를 달리한다. 이 때문에 본론에서는 함께 논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연암이 ‘이름’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을 천하를 유지하는 근원적인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름의 허망함이나 불영속성이 아무리 뼈아픈 ‘진실’이라 해도 인간, 특히 문인 지식인은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행위라는 믿음과 상통한다. 「선굴당기」와 「관재기」, 그리고 「발승암기」와 「영재집서」는 이름 짓기와 이름 남기기에 대한 부정의 글이 아니라 이에 대한 연암의 고민 그 자체를 보여 주고 있는 글이다. 강한 부정과 회의 속에서 그 가능성과 필연성을 비틀림과 반전, 숨김과 유머를 통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그러한 연암의 글쓰기 방식을 고려하여 대상작품의 문맥을 꼼꼼히 읽어냄으로써 이 작품들에 나타난 저자의 주제의식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름에 대한 박지원의 사고는 사후의 기억과 문인들의 인정 욕망과 존재 조건 등 보다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는 거점이 된다. 본고의 분석은 이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작품의 문면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작가의 사고를 둘러싼 인식론적 배경이나 그 철학적 함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연암 스스로의 언명을 대상으로 그 분명한 의미를 밝히려 한 본고의 작업은 저자의 언술 바깥에서 그 맥락과 함의를 읽어내는 단계의 연구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전환’⁵¹⁾을 통해 본고의 분석이 보다 선명한 의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51) ‘방법론적 전환’의 필요성은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지적해 주신 것이다. 차후 연암 연구에 있어 주안점으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고전종합DB.
- 박지원 지음, 박희병 외 편역, 『연암산문 정독: 역주·고이·집평』, 돌베개, 2007, 1~343쪽.
- _____ 지음, 박희병 외 역주, 『중북소선』, 돌베개, 2010, 1~180쪽.
- _____ 지음,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상, 돌베개, 2007, 1~545쪽.
- _____ 지음,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중, 돌베개, 2007, 1~593쪽.
- _____ 지음, 신호열·김명호 옮김, 『연암집』 하, 돌베개, 2007, 1~553쪽.
- 강혜선, 『朴趾源 散文의 古文 변용 양상』, 태학사, 1999, 1~234쪽.
- 김종민, 「『髮僧菴記』의 改作 樣相과 主題에 대한 비평적 분석」, 『한국한문학회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201~231쪽.
- 김혈조, 「『鍾北小選』 서문의 작자 문제」, 『동양한문학회연구』 38, 동양한문학회, 2014, 5~33쪽.
- 류준필, 「조선후기 문인 사회의 인정 욕망과 타자(성)-연암 박지원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7, 국문학회, 2008, 1~47쪽.
- 이은봉, 「『蟬橘堂記』로 본 이름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20, 동양고전학회, 2004, 7~27쪽.
- 이현식, 「〈선굴당기(蟬橘堂記)〉- 부정의 미학」, 『박지원 산문의 논리와 미학』, 이회, 2002, 1~384쪽.
- 태경·조기영, 『알기쉬운 불교용어 산책』, 양사재, 2011, 1~1203쪽.

ABSTRACT

Exploring the Problem of “Name” in Pak Chiwŏn’s Prose

Jang, Jin-youp

This study explores the problem of “name (*myŏng*, 名)” in Pak Chiwŏn’s prose works *Sŏn’gyultanggi* (蟬橋堂記), *Kwanjaegi* (觀齋記), *Palsŭngamgi* (髮僧庵記), and *Yŏngjaejipsŏ* (冷齋集序). While *Sŏn’gyultanggi* discusses the emptiness and constraints of names, it also expects that they will induce efforts to discover the “true form” of the things themselves. *Kwanjaegi* observes how all things, from the self (*ah*, 我) to the name (*myŏng*, 名), change and die through the teaching of “obediently receiving and conveying.” While both works talk about the emptiness of names, they paradoxically also demonstrate their possibilities. Moreover, *Palsŭngamgi* highlights the contradictory existential condition of humans’, particularly literary intellectuals, ceaseless attempts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while *Yŏngjaejipsŏ* explores what this means through literature. The analysis can also be contrasted with Pak’s political treatise *Myŏngnon* (名論) in which he describes how the property of pursuing fame, that is, making a name for oneself, is a fundamental element that decides human action. In sum, the aforementioned works do not refute the making of names and making a name for oneself, but reflect Pak’s anxieties regarding such actions. Within his strong repudiation and doubt, he indirectly expresses the possibilities and necessity of leaving a name behind through humor, concealment, reversal, and twists.

Key Words Pak Chiwŏn, name, *Sŏn’gyultanggi*, *Kwanjaegi*, *Palsŭngamgi*, *Yŏngjaejipsŏ*, *Myŏngnon*

논문투고일 : 2021.04.15
 심사완료일 : 2021.05.02
 게재확정일 : 2021.05.10